

11월 극장가 센세이션... '검은 사제들' 신드롬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극장가 비수기, 입소문 타고 흥행몰이 '새로운 소재·장르...젊은 관객들 호평'

영화 '검은 사제들'이 개봉 초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배우 김윤석과 강동원이 주연한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제작 영화사 집)이 5일 개봉 이후 8일까지 누적관객 150만명(영화진흥위원회)을 불러 모은 것으로 추산된다. 상영 3일째인 7일 이미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한 '암살', '베를린'과 같은 속도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매율까지 급상승해 8일 오후 50%대에 안착했다.

수치로 증명되는 이 같은 초반 성과가 향후 최종 스크어를 향한 긍정적인 기대를 낳는다. 하지만 '검은 사제들'의 흥행 이면에 담긴 의미는 더 주목할 만하다. 넓어진 한국 영화의 소재, 달라진 극장가 분위기, 주연배우의 흥미로운 흥행 공식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계에서는 '검은 사제들'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오컬트 무비'가 본격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초현실적인 현상이나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영화를 일컫는 장르로, 할리우드 영화로 오랫동안 인기를 얻었지만 한국영화에서는 선풍 시도하지 못했던 낯선 분야다. 하지만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 일반의 호기심은 높았던 장르다. 주인공 김윤석 역시 "오컬트 무비에 매력을 느껴왔고 국내에서 처음 다뤄진다는 점에서 더 큰 매력을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화가 주목한 소재는 가톨릭에서 악령을

쫓는 구마예식(엑소시즘)이다. 얼핏 현실과 동떨어진 영적인 영역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지난해 로마 교황청은 엑소시즘을 행하는 구마사제의 존재와 활동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영화를 대하는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검은 사제들'은 극장가에서도 반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11월은 극장을 찾는 관객이 대체로 줄어드는 비수기. 보통 9~10월 추석 명절에 관객이 집중적으로 몰린 뒤 12월이 되기 전까지 극장가에서는 흥행작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검은 사제들'은 11월에 개봉한 역대 한국영화 가운데 '최단 100만'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8일 "젊은 관객층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입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졌다"며 "새로운 소재, 장르에 대한 젊은 관객의 호평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김윤석은 티켓파워와는 별개로 그만의 흥미로운 흥행 공식을 증명했다. 20~30대 남자배우와 투톱 주연을 맡으면 어김없이 흥행하거나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추격자'에서 만난 하정우를 시작으로 '전우치'의 강동원, '암살'의 유아인과 지난해 '해무'의 박유천까지 함께 호흡한 배우들을 자리매김시켜왔다.

그런 면에서 '검은 사제들'은 김윤석과 강동원의 두 번째 만남으로 관심을 더했다. 강동원은 김윤석을 두고 "누구나 인정하는, 의심할 여지없는 최고의 배우"라며 "촬영하는 매일매일 즐길 수 있던 이유는 김윤석 덕분"이라고 신뢰를 보였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영화 '검은 사제들'의 돌풍이 무섭다. '엑소시즘'이라는 낯선 소재를 그리며 5일 개봉 이후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사진제공 | 영화사 집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6년 11월 9일)

국내 팬들 'X파일' 재방송 요청



영화 '검은 사제들'의 초반 흥행세가 범상치 않다. 한국 장편영화로는 처음으로 '엑소시즘'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는 과학과 이성의 영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악령을 쫓는 극중 '구마' 신부(김윤석)와 그를 돕는 부제(강동원)가 안겨주는 긴장감이 상당한데, 이는 탄탄한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은 바 크다.

1996년 오늘, 서울 여의도 KBS영상사업단 회의실에 6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KBS 2TV 외화 시리즈 'X파일'(사:진)의 팬들이었다. PC통신 'X파일 동호회' 회원들이 'X파일'의 3차 시리즈(시즌3)의 종영에 앞서 '한국 X파일 컨벤션'을 발족했다. 또 4차 시리즈 조기 방영 및 지난 시리즈 재방송을 KBS 측에 요청했다.

미국 20세기폭스사가 제작해 1994년 10월31일부터 2002년 10월26일까지 KBS가 방송한 'X파일'은 과학적인 설명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현상과 미스터리한 사건에 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극비 문서를 소재로 삼은 드라마. FBI 특별수사팀 폭스 멀더와 다나 스킵 리가 사건을 해결해가는, 하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멀더는 여동생이 외계인에게 납치됐다고 믿는 요원, 반면에 법의학박사인 스킵리는 철저한 과학적 논리로 무장했다. 이 같은 대립은 '현실감'을 시청자에게 주었다. 이른바 '음모론'을 다뤄 끝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음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컸다.

시리즈물의 인기는 상당했다. 당시 다양한 사회적 담론과 논쟁이 오가던 PC통신에 생겨난 국내 첫 TV프로그램 동호회도 'X파일' 관련 모임이었다. 천리안 등 4개 PC통신에서 활동하는 회원수만 2500여명에 달했다. 멀더와 스킵리 역의 데이비드 듀코브니와 질리언 앤더슨에게도 관심이 쏟아졌다. 멀더야 두 캐릭터를 목소리 연기한 성우 이규화와 서해정도 시선을 모았다.

이 같은 인기는 당시 세기말 상황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문화현상과 한 묶음으로 여겨졌다. '21세기'라는 미지의 연대로 치달아가는 세기말의 분위기 속 불안감과 실체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초현실적인 영역에 대한 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검은 사제들'에 대한 관객의 지지는 무엇 때문일까.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악을 쫓는 선한 존재들을 향한 기다림의 시선은 아닐까.

윤여기 기자 tadada@donga.com

■ 빅 마우스

- "난 맛있게 생겼다." (연기자 박서준) 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최고의 파트너'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예뻐"의 황정음을 꼽으며 "내가 맛있게 생겨 상대를 살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 "희망은 있었지만 그때." (누리꾼 e****) 6일 첫 방송한 tvN '응답하라 1988'에 대한 호평의 기사 댓글에서.

이중 시험대에 오르는 '도리화가' 수지

사극영화·판소리 연기 주목...25일 개봉

수지가 '이중' 시험대에 오른다.

25일 개봉하는 영화 '도리화가'(감독 이종필·제작 영화사 담담)는 수지가 2012년 처음 출연해 성공을 거둔 '건축학개론' 이후 다시 스크린에 나선 작품이다. 그동안 다양한 영화로부터 끊임없는 출연 제의를 받은 수지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해 새롭게 도전하는 무대다.

1867년이 배경인 영화에서 수지는 엄격한 신분제도라는 금기를 깨고 남장까지 불사하며 판소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주인공을 연기했다. 영화는 당시 실존했던 판소리 대가 신

재효(류승룡)를 비롯해 수지가 맡은 가상의 인물들 내세워 꿈과 도전 그리고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펼친다.

수지는 영화의 타이틀롤이나 다름없다. 앞서 '건축학개론'의 성공으로 이후 출연한 드라마에서 주연을 도맡았지만 영화에서는 여전히 그 실력을 확인시켜야 하는 입장. 특히 이번 영화가 사극이란 점에서 더 혹독한 연기력 검증의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천재적인 실력을 갖춘 소리꾼 역할을 어떻게 완성했는지도 관심거리다. 실제로 영화에서 수지는 판소리 실력을 갖춰가는 상황을 이야기의 흐름과 함께 풀어낸다. 이를 위해

혹독한 연습의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 가수라는 배경이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는 "판소리를 익히고 표현하기가 가장 어려웠다"며 "가수를 준비할 때 익힌 발성, 호흡과는 달라 목이 많이 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수지는 영화 출연을 결정하고 촬영을 마치고까지 꼬박 1년 동안 국립창극단 출신 박애리로부터 판소리를 배웠다. 가수의 창법과 전혀 다른 호흡을 구사하기 위해 기본부터 다져 극중 소리 대부분을 직접 소화했다.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소리를 내는 자체가 수지에게 익숙하지 않아 체력이 금방 소진됐지만 나중에는 박애리로부터 판소리하기에 아주 좋은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건축학개론' 성공 이후 주연배우로서 연기와 흥행, 두 가지 모두 책임져야 할 수지의 어깨 무겁다. 사진은 영화 '도리화가'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영화사 담담

이해리 기자

업소용 불판세척기 1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최첨단 만능자동세척기 오크린

업소용 불판자동세척기 특허출원
제 2014-0036470호

고급형 5500
고급형 5000

▲ (최고급형) 오크린5500
- 전 원: 220V / 60Hz
- 소비전력: 2.2Kw
- 제품규격: 755×460×1,180(mm)
- 용 량: 100개 기준 8분 이내

▲ (고급형) 오크린5000
- 전 원: 220V / 60Hz
- 소비전력: 2.2Kw
- 제품규격: 730×450×1,020(mm)
- 용 량: 100개 기준 13분 이내

No.1 오크린 "업소용 불판자동세척기 1위"

불판세척고민!! 오크린이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불판(석쇠) 자동세척기 혁명!

블림통, 블림세제가 필요 없이 한번이면 OK~

이 순간 과거 불판세척기는 잊어주세요! 체험해 보시면 고깃집 사장님 모두가 회심할 것입니다. **세계 최초 4개 브러시 장착**으로 단 한점의 찌꺼기도 없습니다.

기존대비 3배 높은 회전력으로 인한 월등한 세척력!!

오크린만의 **신기술 시스템**

블림통 · 블림세제가 필요없는 세척기

불판 모양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브러쉬

특수 고무로라로 자동 완충장치 장착

오크린 5500 브러시 4개 장착

오크린 5000 브러시 2개 장착

- ✓ 하루 한사람이 10분만 투자하면 끝!-인건비절약
- ✓ 한번 투입에 두번 세척효과로 만족도 200%증가
- ✓ 양방향 브러쉬로 단한점의 찌꺼기도 없이 완벽세척
- ✓ 강력브러쉬 회전력으로 블림이 필요없는 시스템
- ✓ 움직이는 자동브러쉬 장착-어떤 불판도 사용가능
- ✓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므로 어디든지 설치
- ✓ 한번 설치하면 고장없는 반영구적 사용가능 시스템

이번주 친환경 오크린 설치 업소!

서울 (송파)

경남 (진주)

경남 (창원)

부산 (해운대)

경기 (성남)

서울 (도봉구)

누구나 렌탈 할부가능! (한달128,000원)

브랜드파워1위 (오크린) 상표를 꼭 확인하세요.

제품상담 및 렌탈할부 문의 **1544-5192**